

# 등록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5년 1월 8일
위원정수 7명	재적위원 5명

- (1) 일 시 : 2015년 1월 14일(수) 11:00  
(2) 장 소 : 기획홍보처장실  
(3) 참 석 : 정수아, 노재준, 구자윤, 김태훈, 김성수  
(4) 안건 및 심의 결과

가. 안 건 : 2015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나. 심의결과 :

- 1) 2015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함.
- 2) 등록금회계의 차기 이월자금은 없으므로 이월금 이용 계획은 작성하지 않음.
- 3) 2015년도 교비회계의 법정부담금중 법인법정부담금 1억원을 반영 함.
- 4) 차기 등록금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 할 것을 검토하기로 함

## (5) 회의내용

위원장 : 성원이 되어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품목예산 중심을 사업별 예산 중심으로 변경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요약을 상세히 설명하다 -

이어서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예산담당 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윤 : 네, 기획홍보처 예산담당 구자윤 계장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상세히 설명하다 -

위원장 :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 바랍니다.

구자윤 : 예산에 대한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금심의 위원

  
1/4

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변 대학의 등록금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사해보았습니다. 타 대학에서는 예·결산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어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대학도 차기 위원회 구성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위원장 : 네, 차기 등록금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준 : 2015년도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자록 : 등록금 수입 대비 약 56% 정도 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적 활동과 비교육적 활동으로 구분되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는 교육적 활동 인건비로 고정적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재준 : 우리 대학의 총 적립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구자록 : 2013년도 결산 기준 약 540억원 정도 됩니다. 규모는 전국 14위입니다. 그리고 유동자금에 대한 부분은 전국 평균 70억원 정도 됩니다. 수도권의 적립금이 낮은 대학 약200억원으로 정보공시 데이터로 확인 되었습니다.

구자윤 : 이번에 사업별 예산의 확립기로 사업별 예산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관계 법률에 따라 관, 항, 목의 품목예산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별 예산항목에만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관, 항, 목의 품목예산서가 주가 되고 사업별 예산은 별첨의 개념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구자록 : 사업별 예산의 내용이 관, 항, 목의 품목예산서에 전부 포함되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별도 자료로 한 것은 사업별 품목예산으로 구분하게 되면 단일 사업이 여러 품목으로 흩어져 사업의 정확한 규모를 알아보기 힘든 부분과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것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품목별 예산서를 보는 것 보다는 사업별 예산을 보시는 것이 더 낫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구자윤 : 예산 내역 중에 정보처리센터의 그룹웨어 고도화, 시스템개선 으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 되어 있는 것인지요?

구자록 : 네,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 조정, 편성 한 것입니다. 특성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표관리 측면의 적자 예산을 편성 하고자 한 것이 2015년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이고 낭비성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한 예산(안)입니다.



구자윤 : 예산서에 세부 산출근거를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확정 된 이후 배정된 예산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해 집행에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 평가의 부분에 있어 예산대비 집행률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어 각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기 전 편성 단계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조정 되어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구자록 :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처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확립하여 성과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늦게 시작된 면이 있지만 발전전략에 따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예산(안)이 확정이 되더라도 각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적합성 평가를 실시 할 것이고 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진행 여부와 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런 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각 부서별 부서평가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이것이 정착되면 예산통제의 부분도 보다 더 잘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2015년도에 성과주의 사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첫 해로 생각해 주시고 확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낭비적 요인등을 철저히 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재준 : 네, 구자윤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 생각 합니다.

구자록 : 네, 충분히 이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수 : 2015년도에 입학정원이 줄어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 합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지고, 교육비 환원율도 등록금 수입대비 10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편성 되어 낭비적 요인을 예산집행 단계에서 잘 통제 된다면 문제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현실이 특성화대학 진입을 목표로 이월금을 더 투자하는 공격적인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대학이 특성화대학에 진입을 못한다면 이러한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한 한 상황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교비회

2015년 3/4

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과 차기이월자금이 없으므로 이월금 이용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금이 법인법정부담금 수입 1억원으로 평성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등록금 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회의를 정리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정 수 아 (서명)

위 원 : 노 재 준 (서명)

위 원 : 구 자 윤 (서명)

위 원 : 김 태 훈 (서명)

위 원 : 김 성 수 (서명)

2015년 1월 14일

오산대학교 등록금심의 위원회